

피의자신문조서(제12회)

성명 : 남욱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37호 검사실에서 검사 이정규는 검찰주사보
이시은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남욱

주민등록번호는 [REDACTED] (48세)

직업은 변호사, (주)NSJ 홀딩스 대표

주거는 [REDACTED]

등록기준지는 [REDACTED]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

휴대 전화 : [REDACTED]

직장 전화 :

전자우편(e-mail) :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자필기재 또는 기명날인 · 서명)

이하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자필기재 또는 기명날인 · 서명)

이하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자필기재 또는 기명날인 · 서명)

이하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조사장소 도착 시간 15:03)

피의자는 변호인으로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김철환의 입회 하에 조사받기를 원한다고 하기에 위 변호사를 입회하게 하고, 조사를 시작하다.

(조사시작 시간 15:05)

[천화동인7호 배성준 관련]

문 배성준이 피의자에게 지분을 요구한 것은 언제부터 였는가요.

답 배성준이 저에게 지분을 요구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배성준에게 대장동 사업이 잘되면 챙겨주겠다고 말을 해왔었습니다.

문 언제부터 챙겨주겠다는 말을 해왔었나요.

답 2013.경 이후부터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문 배성준에게 지분 3%를 챙겨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배성준이 2012. 4.경 저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준 부분이 있고, 제가 그 돈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김만배가 2013.경부터 종종 갈등이 있었는데 배성준이 중간에서 저희 둘 사이를 조율하고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의리로 챙겨준 부분도 있습니다.

문 배성준은 피의자가 2012. 8. 6.경 70만 원, 2012. 9. 7.경 70만 원, 2012. 9. 25. 경 3,000만 원, 2012. 10. 17.경 3,500만 원, 2012. 12. 23.경 180만 원, 2014. 3. 3.경 1억 원 합계 1억 6,820만 원을 변제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 네, 배성준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배성준에게 다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배성준 입장에서 현재 120억 원이 넘게 배당을 받았으니 저한테 나머지 돈을

변제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문 2014. 경 이후부터 배성준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답 (웃으면서) 그냥 응원이죠 뭐. 어떻게 보면 배성준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일 수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이 120억 원을 가져갔으니까요. 김만배도 저에게 종종 배성준하고 나하고 역할이 바뀌었으면 자기도 마음이 편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문 배성준이 로비에 관여한 경우는 없었나요.

답 직접적으로 배성준이 로비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2. 4. 경 배성준이 차용해준 현금 2억 원이 김만배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기는 했습니다.

문 배성준이 2012. 4. 경 피의자에게 차용해준 2억 원의 명목이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 이상욱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배성준은 현금 2억 원을 피의자에게 빌려주고, 피의자가 김만배에게 전달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김태년 의원이나 이상욱 보좌관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그 당시에 김만배, 배성준과 함께 2억 원을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성준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고 빌려준 것은 맞습니다.

문 2012. 4. 경 김만배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한 장소가 혹시 '청해진' 식당이 맞나요.

답 네, 청해진 식당이 맞습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니 상호가 바뀌긴 했더라고요.

문 배성준이 시의회 로비에도 관여한 것이 있는가요.

답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2012.~2013.경 풍동지구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배성준이 도와준 것은 있나요.

답 그 당시에 배성준이 변찬우 차장검사에게 가서 저를 좋게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성준과 변찬우 변호사는 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전회 진술에서 2011.경 조우형이 부산 저축은행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당시, 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여 배성준을 통해 김만배를 소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조우형을 도와준 이유는 부산 저축은행 수사가 대장동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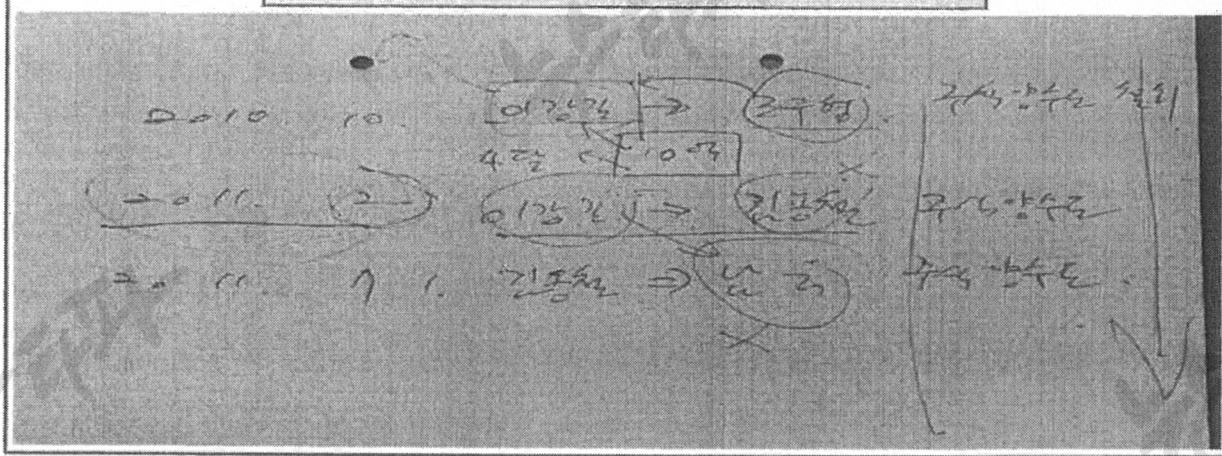
답 어차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다 사용한 상태였고, 조우형이나 이강길의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대장동 원년멤버인 조우형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 조우형을 도와준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답 2011. 2.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자필메모를 제시하고,

피의자 자필 메모



문 2011. 2.경 이강길에서 김용철로 씨세븐의 주식이 양도될 무렵에 조우형에 대한 중수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맞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김만배는 조우형의 수사를 어떻게 도와준 것인가요.

답 김만배는 조우형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할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 8.경 중수부장이 최재경으로 바뀌었는데 최재경 중수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문 김만배가 조우형으로부터 돈을 받았나요.

답 네, 변호사 소개비 등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조우형이 실제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자세히 진술해 보세요.

답 조우형이 2011. 2.경 검찰에 처음 출석했을 때는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나왔고 그날 밤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조우형을 만났는데 그날은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사시나무 떨 듯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조사 전에 김만배에게는 부탁을 했었는데, 김만배가 아직 검찰에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우형도 당연히 수사에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문 조우형을 처음 조사한 검사와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달랐나요.

답 처음 조사한 검사와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처음 조사한 검사가 누구인가요.

답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길배형?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우형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누구인가요.

답 윤석열 중수2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검사가 믹스커피도 타주었고 그날

은 화기애애했다고 들었습니다.

문 조우형과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누구였나요.

답 박영수 변호사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답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었고,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것은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문 김만배로부터 언제 들은 것인가요.

답 조우형이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부터 멀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2과장과 직접 연락했다고 하던가요.

답 아닙니다. 김홍일 등 윗선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2과장과 직접 이야기할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신은 더 윗선과 대화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 조우형은 검찰수사에 어떤 협조를 한 것인가요.

답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다른 피의자들의 협의를 입증하는데 조우형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 어떤 협의였나요.

답 불법대출 및 알선수재와 관련된 내용인데, 조우형이 수사에 협조해서 다른 피의자들이 많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당시 조우형은 처벌을 받았는가요.
- 답 아니오. 처벌을 받지 않았고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조우형이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인가요. 김만배가 부탁을 했기 때문인가요.
- 답 조우형이 수사에 협조해서 선처를 받은 것은 맞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통을 해준 것은 김만배였습니다.
- 문 조우형은 이후에 처벌을 받았는가요.
- 답 네, 그렇습니다. 조우형은 2015년에 같은 사건으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문 그 수사는 어디에서 했던 것인가요.
- 답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했었습니다.
- 문 조우형은 수원지검 특수부에 출석해서, 과거 대검 중수부 수사에 협조를 해서 선처를 받았던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
- 답 그 당시에 김만배나 김홍일 변호사(전 중수부장,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도 조우형에게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협조를 했다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조우형은 수원지검 특수부에 출석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 문 조우형은 2015. 4. 29. 구속되어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위반(배임), 특정범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0억 4,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 답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구속되기 전에 조우형이 먼저 구속되었고, 조우형은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문 조우형은 2011. 2.경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 계속 출석을 했었나요.

답 네, 그 이후에 수시로 출석하여 대검 중수부 수사에 계속 협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회 조사 이후로는 제가 조우형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조우형이 2회 조사 이후로 검찰수사에 협조했고 조우형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제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문 2회 조사 이후에 계속해서 조우형을 조사한 검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답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5. 5. 15. ~ 2015. 11. 6. 수원구치소 접견 관련]

문 피의자는 2015. 5. 15.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수원구치소에 수용중이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당시 피의자에게 면회 온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답 일반 면회로 온 사람은 정OO, 황평 대표, 이상락 위원장, 이호근, 전현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선후배들이 한번씩 오긴 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특별면회를 몇 번이나 했었나요.

답 한두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성준 기자가 특별면회를 해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특별 면회를 온 사람이 누구였나요.

답 배성준, 정OO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인 접견으로 면회를 온 사람은 누구였나요.